

광주청년작가들 인사동길에서 '발發광光'

광주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년 작가들이 서울에서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시립미술관(광장 전승보)이 20~30대 청년작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예술적 성과를 더 넓은 무대에 소개하기 위해 기획한 전시다.

광주청년작가전 '발發광光'전이 오는 3월 2일까지 서울 인사동길 G&J광주전남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김연호·박아론·유지원·정승원·조하늘·하승완 등 6명의 작가가 초대됐다. 참여작가들은 이 시대를 살아 가며 만나는 다양한 감정과 경험들을 서양화·한국화·사진·설치·영상 등 다양한 장르로 풀어냈다. 전시작은 모두 22점이다.

김연호 작가는 슬픔, 불안의 감정을 해소하며 위로를 전하는 작품을 전시한다. 주 소재로 삼은 벤치와 집, 가로등 불빛, 풀벌레 소리, 연꽃 등 일상의 풍경들을 화사한 색채로 풀어낸 김 작가의 작품은 마음에 평안을 준다.

박아론 작가는 시간 흐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사진과 설치 작품으로 풀어냈다.

유지원 작가는 '가치의 재구성'이란 주제로 사회 안에서 버려지거나 무시되어 온 공간, 오브제 흔적들을 소재로 삼아 작업한다. 조각·설치·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작업 속에서 그는 개인과 집단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흔적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승원 작 '양동시장'

광주시립미술관, 3월 2일까지 서울 G&J광주전남갤러리서 전시

김연호·박아론·유지원·정승원·조하늘·하승완 작가 22점 선보여

정승원 작가는 소소한 행복과 즐거운 기억들을 실크스크린 기법을 활용해 작업한다. 가족들의 단란한 저녁 식사, 무더운 여름날 강으로 뛰어드는 아이들 등 '일상의 모습'을 특유의 밝은 색채로 표현해 온 작가는 왓지떨린 시장 풍경을 담은 '양동시장' 등의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유쾌함을 제공한다.

대인관계에서의 회피와 거절 등에 대한

두려움이 큰 우울감으로 다가왔다는 조하늘 작가는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현대인의 '사소한 트라우마'라고 규정하며 우울감 등의 정서를 표출하고 드러냄과 동시

에 치유를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하승완 작가는 미디어나 일상 속에서 경험한 사건의 내러티브와 신화·역사적 사건의 내러티브 간의 구조적 유사성을 극적인 형태로 표현한 작품을 전시한다. 강렬한 색채와 붓질이 인상적인 작품들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청년예술인센터 창작공간 입주자 모집

광주시립미술관 20~21일 접수

광주시립미술관은 청년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2020 창작공간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분야는 미술, 연극, 음악, 문화기획자 등 다양한 예술분야로, 모집인원은 개인 또는 단체 10명 내외, 입주기간은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39세 미만의 광주지역 청년예술인이다.

입주자는 남구 사직동 통기타거리에 위치한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 지원센터(남구 사직길 12)의 창작공간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오픈

스튜디오, 국내 문화예술행사 탐방 등 입주자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지역 청년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 제공과 창작 활동지원을 통해 역량있는 문화예술인을 배출하기 위해 옛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 지난 2016년 10월 개관했으며 교육공간, 문화카페, 창작공간, 공연연습장 등을 갖추고 있다.

접수는 20~21일 이틀간 진행하며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와 입주계획서를 다운받아 미술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26일 입주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유지원 작 'Trace-Collector'

'봉준호 오스카 트로피' 등록문화재?

'제작 50년' 기준 충족 못해 사실상 불가능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 '기생충'은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에 이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감독상·각본상·국제영화상을 휩쓸며 101년 한국 영화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외국어 영화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고, 칸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모두 거머쥔 것도 64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3일 오스카 누리집에 따르면 오스카 트로피는 높이 34cm, 무게 3.85kg이다. 트로피 제작 공장은 뉴욕 허드슨 벨리에 있으며, 50개를 만드는 데 석 달이 걸린다. 1929년 첫 시상식 이후 트로피 3000여 개가 주인을 찾아갔다.

그렇다면 오스카 트로피는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가치 있는 유물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을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보면 등록문화재는 국보·보물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로, 건설·형성되고 50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50년이 넘지 않았더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봉 감독이 받은 오스카 트로피가 상징적 가치가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러나 제작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아 문화재로 등록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합뉴스

'기생충' OST도 아카데미급 인기

스트리밍 16배... '제시카송' 유행에 '독도는 우리 땅' 관심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 영예를 안으면서 영화에 삽입된 배경음악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13일 지니뮤직에 따르면 기생충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 앨범 스트리밍 사용량이 아카데미 수상 전보다 10배 이상 올랐다.

지난 9일 대비 이 앨범 스트리밍은 10일 11배 올랐고 11일에는 14배 증가했다. 12일에는 16배로 경종 오르는 등 꾸준히 스트리밍이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에서도 같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스포티파이에는 지난 10일 공식 SNS에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뒤 스포티파이에서 기생충 OST 스트리밍이 1400% 솟구쳤다"는 글을 게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10일 게재한



정재일의 장엄한 변주곡은 영화 분위기에 완벽하게 수반된다"고 평가했다.

기생충 OST 앨범에는 엔딩곡으로 배우 최우석이 직접 부른 '소중한 잔'을 비롯해 아카데미 수상 당시 흘러나온 타이틀곡 '밀음의 벨트' 등 총 25곡이 수록됐다.

OST 수록곡은 아니지만 영화에서 기정과 배우 남매가 부른 '제시카송'도 유행했다. 제시카송의 인기는 원곡 '독도는 우리 땅'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졌다. /연합뉴스

광주·전남보도사진전 '현장의 눈빛'

'박경완 기자상'에 광주일보 김진수기자 '태극기 휘날리며'

19~25일 광주 신세계 갤러리

지난 한해 동안 치열하게 현장을 카메라 앵글에 담은 지역 사진기자들의 보도사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국사진기자협회광주·전남지회(회장 최기남)가 주최하는 2020년 광주·전남보도사진전이 오는 19일 광주 신세계 갤러리에서 열린다.

'현장의 눈빛'이라는 주제로 오는 25일 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2019년 한해 동안 광주지역 일간지 사진기자들이 국내·외에서 취재한 사진 80여점을 선보인다.

광주의 여름을 화려하게 만들었던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비롯해 전두환씨의 광주법원 출석 등 사진기자들이 발로 뛰며 만들어 낸 작업물이 전시되며 디자인비엔날레 등 문화행사와 광주·전남에서 진행됐던 축제현장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부터는 8일간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열리며 오는 4월 29일부터 한달간은 담양 국제청소년교육재단 유당갤러리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1993년 아시아나 항공 추락사고를 취재하다 순직한 박경완 기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돼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박경완 기자상'에는 광주일보 김진수 기자의 작품 '태극기 휘날리며'가 선정됐다. 김 기자는 지난 해 8월 광주 서구청 광장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의 날 행사에서 시민들이 소녀상 옆에 국화를 헌화하는 모습과 태극기를 절묘히 담아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기남 회장은 "이번 전시작품들은 사진기자들이 현장에서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라며 "작품 하나하나를 통해 역사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진기자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일보 김진수기자 작 '태극기 휘날리며'

광주전통문화관 상반기 수강생 모집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2020 상반기 전통문화예술강좌(3월 16일-6월 27일) 수강생을 모집한다.

광주시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강사진이 구성된 이번 강좌는 수강생 수준도 및 기호에 따라 반을 구분, 맞춤형 강좌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모집 부문은 ▲판소리 초급반·중급반 ▲판소리고급 ▲가야금병창 ▲전통음식의 약이 되는 계절김치, 보양 찜 & 별미 등 ▲전통다례 강예신(한국전래원 광주시 동구지역위원장) ▲민화 성혜숙(광주전통민화회회장) 등이다.

강사진은 ▲판소리 초급반 박미정(시도무형문화재 제16호 판소리춘향가 전수조교), 중급반 방성준(제16호 판소리춘향가 보유자), 이순자(제1호 남도판소리 보유자) ▲판소리고급 양신승(제11호 판소리고급 보유자) ▲가야금병창 보유자(제18호 가야금병창 보유자), 황승욱(제18호 가야금병창 보유자) ▲전통음식 최영자(제17호 남도의례음식 보유자), 민경숙(제17호 남도의례음식 보유자) ▲랑화 송광무(제21호 탕화 보유자) ▲가야금만들기 이복수(제12호 약기장 보유자) ▲정소년(가야금병창 문명자(제18호 가야금병창 보유자)이다. ▲전통다례 강예신(한국전래원 광주시 동구지역위원장) ▲민화 성혜숙(광주전통민화회회장) 등이다.

수강 신청은 3월 1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전통문화관 홈페이지, 직접방문, 전화 접수로 가능하다. 수강료는 10만원(재료비는 별도).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유·스퀘어 공연·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 연기

최근 코로나 19 감염 우려에 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과 유·스퀘어 문화관 공연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오는 27~28일 양일간 예정됐던 제11회 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오디션 일정은 아직 미정이며,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 13일 열릴 예정이던 앙상블 밀레장

단 연주회와 24일 예정된 코르넬 노이정 기념주회는 각각 3월 20일과 5월 18일로 연기됐다.

이밖에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Pour le piano(16일), 장현룡 호른 독주회(18일), 뷔에르 앙상블 Wind Max(20일), 에이샵 뮤직 페스티벌(21일) 등 공연은 모두 취소됐다.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도 "각종 연회 행사"는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프로야구단지정숙소 KBO LEAGUE 승무원지정숙소 KOREAN AIR 승무원지정숙소 아시아나항공 t'way 승무원지정숙소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